

# 꼭두

김경화 희곡집



해성

김경화 회곡집

저자와

김경화 회곡집

김경화 회곡집

저자와

혈의에 의해 인지 생략함

꼭 두



지은이 · 김경화  
펴낸이 · 김정배  
펴낸곳 · 해 성



1쇄 펴냄 · 1992. 7. 10



부산시 중구 중앙동3가10(권우빌딩 303호)

전화 · (501) 465-1329

팩스 · (051) 465-0485

등록 · 1992. 4. 6 제카 1-117호

©해성 1992

값 4,000원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해 성



나는 회극 작가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첫째는 걸출한 작가가 될만한 필력이 없는 탓이고, 둘째는 공연 해 줄 극단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셋째는 돈이 안될 것 같고, 넷째는 실사 공연이 된다 하더라도 관객들이 고정관념만 가지고 창작극을 외면 하리라는 선입관 때문이다.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회극이라면 공연되지 않을 리 없고 관객이 외면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아직은 나의 작품이 그런 수준이 안될 것 같다.

이번 회극집에 수록된 「꼭두」 「환상의 섬」 「종이꽃」 「즐거라 즐겨! - (줄무가)」 「염소와 비단」은 모두 한번씩 공연이 된 작품이지만 크게 격찬을 받은 적은 한번도 없다. 내면엔 머리카락 빠트리거나 심혈을 기울였는데 역시나 채수준에 머무르고 만 것이다. 그러나 기를 가지 않고 더욱 열심히 쓰고 만들고 할 것이라는 애감이 든다. 무식한 행보일 수 밖에 없는 조건속에서 신데렐라의 꿈은 키우지 않는다. 바로 그림이 직업 광대로서의 자만심이 아닐까 여겨진다. 자존이 자만으로 변한다해도 내게는 소중한 연극 작업이다.

코홀리케 어린 시절의 여름. 광목천으로 무대를 꾸며놓고 촛불 조명 아래에서 어린 광대놀음을 놀던 생각이 난다.

동네 조무라기들은 채수대야를 두들기며 효과음악을 냈고 밀가루 칠로 분장을 하며 연극놀이를 즐겼었다.

그때의 질은 추억들이 오늘의 광대를 만들어낸 바탕이 아니었나 싶다.

광대생활 20년에 이수룩한 한편의 책을 꾸미는 일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두렵지만 좀더 발전적인 나의 광대생활이 되기 위해서 피땀을 모아왔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용골찬 각오로 다시 시작하려한다. 공연 때마다 책다른 모습으로 바뀔 회극의 모습을 상상하며 출산의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광대따라 산다고 모진 고생하는 신영숙여사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연극계의 선배와 동지들, 극단 「맥」의 단원들과 이우길님, 우동, 수만민, 가마골소극장의 안채식, 장호 대표와 이윤택님과 식구들, 도서출판 해성의 김성배 사장에게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의 고마운 배려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하였다. 이 줄작으로 그분들의 은혜에 보답코저 한다.

꼭두

이제야 내마음은 겨우 풀렸나니  
 이별 후부터는 슬픔 고쳐 내마음  
 풀고야  
 내마음은 겨우 풀렸나니  
 이별 후부터는 슬픔 고쳐 내마음  
 풀고야

이제야 내마음은 겨우 풀렸나니  
 이별 후부터는 슬픔 고쳐 내마음  
 풀고야  
 내마음은 겨우 풀렸나니  
 이별 후부터는 슬픔 고쳐 내마음  
 풀고야

이제야 내마음은 겨우 풀렸나니  
 이별 후부터는 슬픔 고쳐 내마음  
 풀고야  
 내마음은 겨우 풀렸나니  
 이별 후부터는 슬픔 고쳐 내마음  
 풀고야

이제야 내마음은 겨우 풀렸나니  
 이별 후부터는 슬픔 고쳐 내마음  
 풀고야  
 내마음은 겨우 풀렸나니  
 이별 후부터는 슬픔 고쳐 내마음  
 풀고야

이제야 내마음은 겨우 풀렸나니  
 이별 후부터는 슬픔 고쳐 내마음  
 풀고야  
 내마음은 겨우 풀렸나니  
 이별 후부터는 슬픔 고쳐 내마음  
 풀고야

치레

- 꼭두 · 16
- 환상의 섬 · 46
- 별을 낚는 사람들 · 98
- 즐거라 즐겨 · 136
- 인개도시 · 168
- 염소와 비단 · 194
- F선상의 광대 · 218
- 종이 꽃 · 236